

# 9일 한일 정상회담 아베와 첫 대화, 기대는 해보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추켜 연후 직후에 여는 쪽으로 양국 정부가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것인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담 일지는 9일이 유력해 보인다.

양국 정상간 회담은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11개월만이며, 상대방 국가를 오가는 '셔틀 정상외교'로 볼 때는 지난해 6월 서울 정상회담 이후 1년4개월만이다.

**▲대(對) 아베 정부 태도 바뀌니=**양국 정상외교의 단절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을 비롯,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행위에서 비롯됐다.

새로운 아베 신조 총리 체제가 들어서 후 단절된 양국의 정상외교 체널이 복구될 것인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점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사실 자체로도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양국이 과연 서로 치달았던 정상외교를 그대로 받

## 역사왜곡 '행동' 않는 한 日 손길 내칠 이유 없어 신뢰회복 최우선 의제...독도 문제 등 현안 논의도

치할 수만은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아베 총리 취임이라는 계기를 놓칠 경우 향후 관계 복원의 모멘텀을 잡기 쉽지 않다는 실리적 판단도 조기 회담 성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외교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중국과의 조기 정상회담을 바라는 아베 정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것만, "일본 정치지도자의 역사왜곡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미래 동북아 평화와 협력질서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도 고이즈미 전 총리 못지 않게 우익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일단 지켜보되, 정상회담 등 각종 채널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거듭 전달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상회담 '전제조건' 있나=**이번 회담의 성사를 위한 '전제조건'을 둘러싸고 한일 양측이 첨예한 견해를 보이거나 '줄다리기'를 한 흔적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의 경우 한국 정부가 "앞으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곤란하며, 참배

를 강행할 경우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고, 일본측이 "잘 인식하고 있다"며 '양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도 '조건없는' 회담성사의 배경이 됐다. 이점 점을 감안할 때 상건례를 겪은 이번 회담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보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회담의 성과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무엇보다도 악화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영토적 요소를 배제한 독도 주변을 포함, 동해의 안정적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아수라장 된 쌀시장



이종태  
경제부처장

'밥심'이라는 말이 있다. 2004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5중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이종헌 선수. 그는 단체전 계주 1등으로 끝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전날 닭김치에 밥 두 그릇을 먹은 게 효과를 본 것 같다'며 '밥심'에 공을 들였다.

'밥심'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무기질 등을 고루 함유한 완전식품인 쌀에서 나온다는 과학적 검증 이전에 우리 선인들은 경험을 통해 '밥심'의 위대함을 숭배해왔다.

그런 쌀이 위기를 맞고 있다. 밥쌀용 수입쌀은 올해 5만4천t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쌀 관세유예가 끝나는 오는 2014년 12만2천600t이 들어오게 된다. 기억할 수 없는 개방시대의 산물인 셈이다.

이 정도 물량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연평균 쌀 소비량 399만t의 3%에 불과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의무수입물량(가공용)까지 합칠 경우 연 소비량의 11%를 웃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수년 전부터 가공용 수입쌀이 시장에서 밥쌀용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수입쌀들이 밥쌀용 수입쌀을 국산과 섞어 국내산 쌀로 속여팔다가 관계당국에 적발돼 국내 쌀 시장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다.

지금껏 농촌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개방되지 않은 유일한 농산물 품목이자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는 쌀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쌀값은 전년에 비해 20% 이상 폭락한데다, 수입쌀에 치열한 판이 '사형선고'를 두번 받은 심경이라는 농민들의 푸념이 푸념만으로도 들리지 않는다.

수입쌀 혼합 비율을 겉표장에 표시하면 혼합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 경미한 과태료만 물도록 한 처벌규정은 아무리 끊임없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숨방방이 과태료' 처벌에 그치는데, 어느 참정관 수입상이 허위 표시를 해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당하는 '모함'을 하겠는가.

농민들은 농촌회생에 수조원, 아니 수십조원을 쏟아부었다는 정부의 거창한 구호를 믿지 않은지 이미 오래다. 양곡유통과정의 투명화와 함께 음식점 원산지 자동표시운동을 법제화하고 직불제를 현실화하는, 피부에 와닿는 실감나는 농정이 있어야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횡수를 줄일 것이다.

/jtee@kwangju.co.kr



2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에서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 등 남측 대표(오른쪽)들과 박기용 북측단장 등 북측대표들이 참석,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일본, 1970년대 초까지 자위대원 한국군 정탐”

美 외교사료집

### “저우언라이 문제 제기” 키신저 사실 확인 후 인정



키신저전미국수상관 저우언라이(前中총리)

일본은 최소한 1970년대 초만까지 자위대원들을 민간복장으로 한국에 보내 매달 한국의 군사상황을 정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 국무부가 지난주 펴낸 '미국외교사료집 1969~1976년 제17권' 가운데 중국(1969~1972) 편에 따르면 미중 수교 직전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간 회담에서 중국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우언라이는 1971년 7월 9, 10일 키신저와 대화에서 일본의 군사 팽창주의에 우려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매달 요원들을 민간복장으로 한국에 보내 한국 군사 상황을 살피도록(look into) 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신저는 일본 자위대원의 한국 군사상황 정탐 사실에 대해 "솔직히 모르는 일이다.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닉슨 대통령에게 방중 결과를 보고하면서 "저우언라이의 말이 맞다"고 설명했다.

키신저는 이 보고에서 이 일을 한국 정부도 알고 있는지, 한국 정부와 양해된 한일군 군사협력 차원의 일인지, 미국의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

하지 않았다.

저우언라이는 또 키신저, 닉슨과의 대화에서 닉슨독트린에 따라 추진하고 있던 주한미군과 대만주둔 미군의 철수가 완료되면 일본군이 미군 대신 한국과 대만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거듭 표시했다.

저우언라이는 닉슨과 대화에선 역시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얘기 도중 "일본군이 한국을 침략하도록 허용하면 긴장이 조성될 것이다. 키신저 장관은 일본이 몇번 시도했다고 인정했다"며 다시 일본 자위대원들의 한국 정탐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는 이런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그러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닉슨은 "일본의 한국 개입은 미국과 중국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의 대일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긴장완화 합의 이행” VS “비방전단 살포 중지”

## 재개된 남북 군사회담 '소득없는 공방'

지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군사당국간 접촉이 북측의 대북 선전활동 중단 요구 등으로 별다른 성과없이 2시간 여만에 종료됐다.

남북은 2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10분까지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문성묵(육군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측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살포 문제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의 통행질서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측은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에 자제를 촉구하는 등 재발 방지노력을 한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북측이 이해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측은 또 남북 경협사업을 위한 군사

적 보장조치 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군사적 보장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위한 여건조성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팀장은 "남북 양측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군사당국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접촉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각자 검토한 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방수 직접 공사하세요!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수구나 지바용으로 100% 완벽한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드림방수방수제는?**

- 방수효과 우수
- 시공이 편리
- 내구성이 우수
- 환경친화적
- 방수효과 우수

**드림방수방수제의 특징**

- 방수효과 우수
- 시공이 편리
- 내구성이 우수
- 환경친화적
- 방수효과 우수

**문의처** 드림방수방수제

080-362-7788

###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실용성으로

www.hanboGAGU.com

112-9100 010-6225-0100

---

###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토치 광주총판

TOUCH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080-362-7788